**수 신: 자동차 담당 기자님**

**배포일자: 2024년 1월 3일(수)**

최대한

**관련자료: 데이터**

기아, 2023년 308만 5,771대 판매

- **’**23년 총 308만 5,771대 판매하며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연간 판매** 기록

 … 기존 연간 판매 최대 실적은 **’**14년에 기록한 303만 8,552대

- 국내 시장에서 56만 3,660대 판매, **’**22년 대비 4.6% 증가

 … 국내에서도 역대 최대 판매, 기존 국내 판매 최대 실적은 ’20년 55만 2,400대

- 해외 시장에서 251만 6,383대 판매, **’**22년 대비 6.7% 증가

- 특수 차량은 5,728대 판매

- 차종별로는 스포티지가 52만 3,502대로 최다 판매, 셀토스와 쏘렌토 뒤이어

- **’**24년은 경제형 EV 출시, 수익성 중심 영업 원칙 준수, 커넥티비티 기술 기반 상품성 강화, PBV 비즈니스 구체화 등으로 전동화 선도 브랜드 위상 강화 계획

 … 국내 53만대, 해외 266.3만대, 특수 7천대 등 320만대 판매 목표

- **’**23년 12월 국내 4만 4,803대, 해외 16만 8,125대, 특수 615대 등 21만 3,543대 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2023년 | 2022년 | 전년동월대비 | 2023년 | 전월대비 | 2023년 | 2022년 | 연간누계대비 |
| 12월 | 12월 | 11월 | 1-12월 | 1-12월 |
| **국내** | 44,803  | 50,153  | -10.7% | 50,022  | -10.4% | 563,660  | 538,822  | 4.6% |
| **해외** | 168,125  | 184,230  | -8.7% | 209,759  | -19.8% | 2,516,383  | 2,359,043  | 6.7% |
| **특수 차량** | 615  | 669  | -8.1% | 582  | 5.7% | 5,728  | 3,932  | 45.7% |
| **계** | 213,543  | 235,052  | -9.2% | 260,363  | -18.0% | 3,085,771  | 2,901,797  | 6.3% |

기아가 1962년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의 연간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기아는 2023년 한해 동안 국내 56만 3,660대, 해외 251만 6,383대, 특수 5,728대 등 2022년 대비 6.3% 증가한 308만 5,771대를 판매했다. (도매 판매 기준)

이는 2022년과 비교해 국내는 4.6%, 해외는 6.7% 증가한 수치다. (특수 판매 제외)

기존 연간 최대 판매는 2014년에 기록한 303만 8,552대로 국내에서 46만 5,200대, 해외에서 257만 3,352대가 판매됐다.

2023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은 스포티지로 52만 3,502대가 판매됐으며 셀토스가 34만 4,013대, 쏘렌토가 24만 2,892대로 뒤를 이었다.

기아는 2024년 ▲경제형 EV 출시 ▲커넥티비티 기술 기반 상품성 강화 ▲PBV 비즈니스 구체화 ▲수익성 중심 영업 원칙 준수 등을 통해 고객 가치와 수익성을 높이고 전동화 선도 브랜드의 위상을 공고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국내 53만대, 해외 266만 3천대, 특수 7천대 등 글로벌 320만대 판매를 목표로 세웠다.

**■ 국내 판매**

기아가 2023년 역대 최대 국내 판매를 기록했다.

기존 국내 최대 판매는 2020년에 기록한 55만 2,400대다.

기아는 2023년 국내에서 2022년 대비 4.6% 증가한 56만 3,660대를 판매했다.

2023년 한해 동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쏘렌토로 8만 5,811대가 판매됐으며 카니발(6만 9,857대), 스포티지(6만 9,749대)가 뒤를 이었다.

승용 모델은 레이 5만 930대, K8 4만 437대, K5 3만 4,579대, 모닝 2만 5,879대 등 총 16만 9,410대가 판매됐다.

쏘렌토와 카니발, 스포티지를 포함한 RV 모델은 셀토스 5만 837대, 니로 2만 3,475대, EV6 1만 7,227대 등 총 33만 28대가 판매됐다.

상용 모델은 봉고Ⅲ가 6만 2,919대 팔리는 등 버스를 합쳐 6만 4,222대가 판매됐다.

**■ 해외 판매**

기아의 2023년 해외 판매는 2022년 대비 6.7% 증가한 251만 6,383대를 기록했다.

기아는 미국, 유럽, 인도에서 연간 최대 판매량을 경신하며 주요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기록했다.

2023년 기아는 미국 82만 3,910대, 유럽 60만 6,788대, 인도 25만 5천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세 시장의 기존 연간 최대 판매 실적은 미국 70만 4,088대(’22년), 유럽 54만 7,107대(’22년), 인도 25만 4,556대(’22년)다.

2023년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은 스포티지로 45만 3,753대가 판매됐으며 셀토스가 29만 3,176대, K3가 20만 9,669대로 뒤를 이었다.

**■ 특수 판매**

같은 기간 특수 차량은 국내 2,166대, 해외 3,562대 등 총 5,728대가 판매됐다.

기아 관계자는 “지난해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 현상 완화로 인한 생산 물량 증가 및 공급 확대와 더불어 EV9, 더 뉴 쏘렌토, 더 뉴 K5, 더 뉴 카니발 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통해 역대 최대 연간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현대차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공장인 오토랜드 광명 전기차 전용공장을 완공해 소형 전기차 EV3 판매를 시작함으로써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2024년에도 상품성을 기반으로 견조한 수익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2023년 12월 판매**

한편 지난달 기아는 2022년 12월 대비 9.2% 감소한 21만 3,543대를 판매했다.

국내외를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스포티지로 3만 7,817대가 판매됐다.

국내에서는 2022년 12월 대비 10.7% 감소한 4만 4,803대를 판매했으며 차종별로는 쏘렌토(8,068대), 스포티지(5,739대), 카니발(5,305대) 순으로 많이 판매했다.

해외에서는 2022년 12월 대비 8.7% 감소한 16만 8,125대를 판매했으며 차종별로는 스포티지(3만 2,078대), 셀토스(2만 5,509대), K3(1만 6,378대) 순으로 많이 판매했다.